

전해도금으로 형성된 Sn 솔더 범프의 신뢰성

Reliability of Electroplated Pure Sn Solder Bumps

김유나, 구자명, 정승부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Abstract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s and shear properties of the pure Sn solder bumps with Ni UBM were investigated during multiple reflows and high temperature storage (HTS) tests. Only a Ni_3Sn_4 IMC was found at the bump/Ni UBM interface after 1 reflow. The layer thickness of these IMCs increased with increasing reflow number and testing time. The solder bumps showed a good reliability during multiple reflows and HTS tests.

1. 서 론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고주파 영역에서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가지는 새로운 재료, 부품 및 모듈, 기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 기술과 더불어 설계된 마이크로 칩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자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칩 자체의 미세화, 접적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전자 패키징 분야에서는 패키지의 경·박·단·소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패키징 형태는 기존의 와이어 본딩 기술에서, under bump metallization (UBM)을 형성시킨 후 솔더 범프를 형성하는 플립칩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Au wire 대신 솔더 범프를 이용하게 되면 칩과 기판의 접속부의 길이가 최소화되며, 임피던스가 1/10로 감소하며, 1 GHz 이상의 고주파인 경우에도 입출력의 반사 손실이 와이어 본딩이나 tape automated bonding (TAB) 방식에 비해 훨씬 적다. 정보통신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및 전송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저임피던스 특성을 갖는 플립칩 패키징 기술의 발전 및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구되고 있다.

기존에 전자·전기 기기 및 부품 실장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Sn-Pb 솔더 범프는 취급이 용이하고, 낮은 가격 및 솔더 재료로서의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범프 내 함유된 Pb의 환경적 유해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무연 솔더 범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범프 재료는 Sn을 주요 원소로 사용하고 있다. 솔더 범프의 신뢰성은 UBM 재료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 리플로우와 고온방치시험 (HTS test: high temperature storage test)을 시행한 후, 대표적인 UBM 재료인 Ni을 UBM으로 사용한 pure Sn 솔더 범프의 계면반응과 전단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플립칩 패키지 제조 공정

4인치 실리콘 웨이퍼 위에 Ti (1000 nm)와 Cu (3000 nm)를 스퍼터 증착하여 interconnection line을 형성시켰다. UBM 층은 두 종류 (Cu와 Ni)를 전해도금 하여 형성시켰다. UBM의 패드

면적은 $60 \times 60 \mu\text{m}^2$ 이었으며, 높이는 5 μm 이었다. 솔더 범프는 pure Sn를 전해도금 하여 형성하였다.

물 두께가 성장하였다.

2.2 리플로우 공정과 고온방치시험

제조된 플립칩은 적외선 리플로우 머신 (RF-430-N2)을 사용하여 접합하였다. 공정 중의 피크 온도와 시간은 각각 255°C 와 55초이었다. 리플로우 회수에 따른 미세조직 및 전단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0회까지 리플로우 하였다.

고온방치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1회 리플로우 한 시편을 150°C 에서 100, 300, 500, 700, 1,000, 1,200, 1,500 시간동안 방치하였다.

2.3 전단 테스트

전단 시험은 리플로우 공정 및 HTS 시험이 끝난 후, 1 (± 0.5) 시간 후 실시하였다. Bump shear test는 플립칩 실장에서 솔더 접합부의 접합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본 실험에서는 전단 시험기(Rhesca PTR-1000)를 사용하였으며, 전단 속도와 높이는 각각 0.2 mm/s 와 $15 \mu\text{m}$ 로 고정시켰다. 전단 시험 중에, 전단 지그의 이동거리에 따른 전단력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최대 전단력과 파괴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하였다. 전단 시험 후 파면의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2 전단 테스트

리플로우 후 전단 시험 결과, 리플로우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간 화합물 두께 증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전단 강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큰 변화가 없었다. 고온방치시험을 시행하였을 때에도 솔더의 결정립 상장에 의한 강도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큰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UBM 끝단에 약간의 쥐성 파괴가 관찰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연성파괴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단 강도 결과와 매우 잘 부합되었다.

따라서, pure Sn 솔더 범프를 플립칩 패키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Ni이 UBM 재료로서 매우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 (R01-2004-000-10572-0)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멀티 리플로우 공정과 고온방치 시험을 시행한 후, pure Sn 솔더 범프의 계면반응 및 접합 강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3.1 계면반응

1회 리플로우 후, 솔더 범프와 Ni UBM 사이의 접합 계면에서는 Ni_3Sn_4 금속간 화합물이 생성되었다. 또한 리플로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Ni_3Sn_4 금속간 화합물층의 두께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고온방치시험을 1,500 시간동안 시행하였을 때에도 Ni_3Sn_4 금속간화합물만이 관찰되었으며, 시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금속간화합